
2016년 특수상황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 결과보고

2016. 12. 15. ~ 23.



목 포 시
(해양수산과)

목 차

I. 연수개요	1
II. 연수지역	4
1. 크로아티아	4
2. 그리스	8
III. 연수내용	13
1. 두브로니크 시청	16
2. 모스타르 내전 현장	18
3. UN 난민기구	19
4. 그리스 섬 정책 현장	22
5. 그리스 해양부	30
IV. 시사점 및 특이사항	38
1. 전쟁으로 인한 소중한 문화유산 복원	38
2. 난민 관리 및 평화 정착	40
3. 섬 관광 활성화	42
4. 섬 주민 지원 정책	44
V. 연수 후기	46

2016년 특수상황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 결과보고

I

연수개요

□ 연수개요

- 기 간 : 2016.12.15(목) ~ 12.23(금) / 7박 9일
- 목 적 : 접경, 도서 등 특수상황지역과 연계된 국외 사례를 조사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
- 방문지역 : 크로아티아, 그리스
- 주관부서 : 지역발전위원회, 행자부 공동 주관
- 참 여 : 지방자치단체 특수상황지역 담당

□ 연수내용

- ✓ 전쟁 후 평화가 정착되어 발전하고 있는 지역, 난민 문제 발생 지역 등 사례 연구
- ✓ 관광 자원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 등 구체적 섬 발전 사례 수집

- (평화지역) 1991년 유고 내전으로 피해를 입고 시가지가 파괴되었으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가는 지역 방문
 - ▶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자다르, 스플리트, 보스니아 모스타르 등
- (분쟁지역) 유고내전 이후 최근까지 난민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 접경지역 장기적 준비방안 모색
 - ▶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유엔난민기구 등
- (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국가의 성장동력 구축 차원에서 특색있게 개발되는 섬 현장 방문, 우리나라 섬의 발전방안에 반영
 - ▶ 그리스섬 에기나, 포로스, 이드라 섬 및 그리스 해양부

□ 연수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연수내용		
12.15. (목)	인천	두브로브니크	-	12:50	○ 인천 공항 출발	
				16:30	○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경유)	
				19:30	○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	
				21:10	○ 두브로브니크 도착	
12.16. (금)			두브로브니크 시청	오전	○ 두브로브니크 시청 복원연구소 - 1991년 내전 이후 도시재생 정책 - 중장기 도시·문화유산 복원 계획 - 도시의 미래발전 전략	
				오후	- 유고내전 전쟁 사료관 - 두브로브니크 성곽 보존·복구 지역	
12.17. (토)	두브로브니크	스플릿	-	오전	▪ 모스타르로 이동	
				오후	▪ 보스니아 모스타르 내전 발생지 현장 ▪ 크로아티아-보스니아 접경지역 ▪ 스플릿으로 이동	
12.18. (일)	스플릿	트로기르 자다르	-	오전	▪ 스플릿, 트로기르 전쟁이후 문화유산 복원 및 관리현장	
				오후	▪ 자다르로 이동	
12.19. (월)	자다르	자그레브	-	오전	▪ 자그레브로 이동	
				오후	▪ 유엔 난민기구	
12.20. (화)	자그레브	아테네	-	오전	▪ 자그레브 공항 출발	
				오후	▪ 베오그라드 공항 도착 ▪ 베오그라드 출발 ▪ 아테네 공항 도착	
12.21. (수)			섬 상인회	오전	▪ 에기나 섬, 포로스 섬(FERRY)	
				오후	▪ 이드라 섬(FERRY) ▪ 해상운송 종사자 간담회 ▪ 아테네로 이동	
12.22. (목)	아테네		그리스 해양부 선박 및 섬 관리부	오전	○ 그리스 해양부 선박 및 섬 관리부 방문 ▪ 중장기적인 그리스 섬 발전 계획 ▪ 해상교통 체계 및 향후 개선 방향 ▪ 섬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개발	
				14:15	▪ 아테네 공항 출발	
				16:20	▪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18:30	▪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	
12.23. (금)		인천		12:40	▪ 인천 공항 도착	

□ 연수 참여인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지역발전위원회	행정5급	박현정	02-2100-1153
지역발전위원회	전문관	전정규	02-2100-1174
행정자치부	시설5급	양대성	02-2100-4229
행정자치부	시설6급	오재수	02-2100-4221
인천시 옹진군	행정7급	홍순정	032-899-3913
인천시 강화군	시설5급	김성엽	032-930-3480
경기도청	지방서기관	이상구	031-8030-2610
경기도청	행정5급	홍순학	031-8030-2631
포천시	행정7급	황성진	031-538-2053
남양주시	행정6급	조성연	031-590-2146
강원도청	행정7급	최주영	033-249-3878
철원군	지방서기관	최석열	033-450-5206
화천군	행정7급	박정원	033-440-2216
양구군	학예연구사	문종근	033-480-2664
인제군	행정7급	이명규	033-460-2011
고성군	행정6급	김응규	033-680-3732
충청남도청	행정5급	김제환	041-635-4814
보령시	시설7급	시봉기	041-930-3934
서산시	시설6급	장규석	041-660-2252
당진시	시설6급	안병환	041-350-4631
홍성군	시설6급	조상범	041-630-1252
전라북도 군산시	시설7급	김성	063-454-2932
전라남도	해양수산5급	신운용	061-286-6860
목포시	행정5급	이영권	061-270-3600
목포시	시설7급	윤재웅	061-270-8079
여수시	시설6급	고희승	061-659-3985
경상남도청	시설7급	최재훈	055-211-6145
통영시	시설6급	윤창한	055-650-5521
사천시	행정5급	이상석	055-831-3230

1. 크로아티아 (Croatia)

【 일반 현황 】

- ◆ 수도 : 자그레브(Zagreb)
- ◆ 인구 : 4,464,844명 (2015년 기준)
- ◆ 면적 : 56,594km²
- ◆ 기후 : 지역에 따라 지중해성기후, 서안해안성기후, 온난습윤기후
- ◆ 주요민족 : 크로아티아인(Croatian), 세르비아인(Serbian)
- ◆ 주요언어 : 크로아티아어(Croatian)
- ◆ 종교 : 카톨릭(76%), 세르비아정교(11%)



▷ 굴곡 많은 역사의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6개의 공화국 중 하나였으며 1991년 6월 독립하였다. 독립과 내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으나 최근 평화와 번영을 되찾고 있다.

남동유럽에 속한 나라로 발칸 반도의 판노니아 평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크로아티아를 흐르바츠키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도는 자그레브이며 동쪽으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서쪽으로 아드리아해, 북쪽으로는 슬로베니아·헝가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과거로부터 동서양의 교차점으로서 교류가 활발했고 고대그리스와 로마시대의 궁전을 비롯해 이집트와 수메르 문화의 흔적들로 보여지는 유적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인이 지금의 크로아티아 땅에 온 것은 7세기 초의 일로 두 나라를 세웠다. 그 후 925년 토미슬라브(Tomislav)는 지금의 크로아티아로 통일왕국을 이룩하였다. 크로아티아 왕국은 200여년 가까이 주권을 지켰으며, 페타르 크레쉬미르 4세와 드미타르 즈보니미르 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다. 이후 오스만 제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등 주변국의 지배를 받으며 굴곡 많은 역사를 겪어왔다.

1102년에 크로아티아는 헝가리 왕국과 연합을 맺는다. 1526년에 크로아티아 의회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페르디난트 1세를 국왕으로 선출했다. 20세기초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며 발칸반도는 제국주의가 만연한 유럽의 화약고가 되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편입되었던 크로아티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오스트리아 대신 세르비아 왕조 중심의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일부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 이에, 1918년에 오스트리아-헝가리로부터 독립해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일부가 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에 편입되었다. 1991년 6월 25일에 크로아티아는 독립을 선언해 주권 국가가 되었다.

독립 이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중심으로 유고슬라비아의 경제를 이끈 국가들의 불만과 종교·인종·언어의 갈등, 복잡한 역사로 인한 증오심 등으로 20세기 최악의 내전을 겪었다. 전쟁 이후 오랜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친서방 정책을 펼치며 관광사업으로 높은 수입을 얻어 빠른 발전을 이룩하였고, 2013년 7월에는 EU에 가입하여 경제·문화적 발전과 더불어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국제 연합, 유럽 평의회, 북대서양 조약기구, 세계 무역 기구, 유럽 연합의 가입국이다. 크로아티아는 지중해 연합의 창립 회원국이기도 하다. 국제 통화 기금에서는 이 나라를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며, 세계은행에서는 고소득 경제 수준으로 본다.

▷ 아드리아해에 접한 관광 대국

크로아티아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대국이다. 많은 국민들이 관광업으로 수입을 얻는데, 기념품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고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역사로 인해 중세와 로마시대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샤프펜슬, 만년필, 넥타이와 같은 최고의 발명품을 비롯하여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내로라하는 유명 축구팀이 많아 유럽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대다수가 축구 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관심이 높다.

▷ 높은 성장 잠재력

크로아티아의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이며 151석의 단원제이다. 주요정당은 사회민주당, 크로아티아사회진보당, 크로아티아민주연합, 크로아티아농민연합 등이다. 1994년 3월 미국의 중재로 보스니아, 헤르

체고비나 연방과 국가연합을 형성하기로 합의했다. 1992년 8월 독립 후 첫 대통령선거와 하원의원 선거를 실시, 프라노 투지만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달마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드리아해 연안에 관광 명소가 많아 대표적 외화가득원은 관광이었으나, 내전으로 관광수입이 격감하다가 괄목할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100만명이 넘는 유럽인 휴양객들이 아드리아해 연안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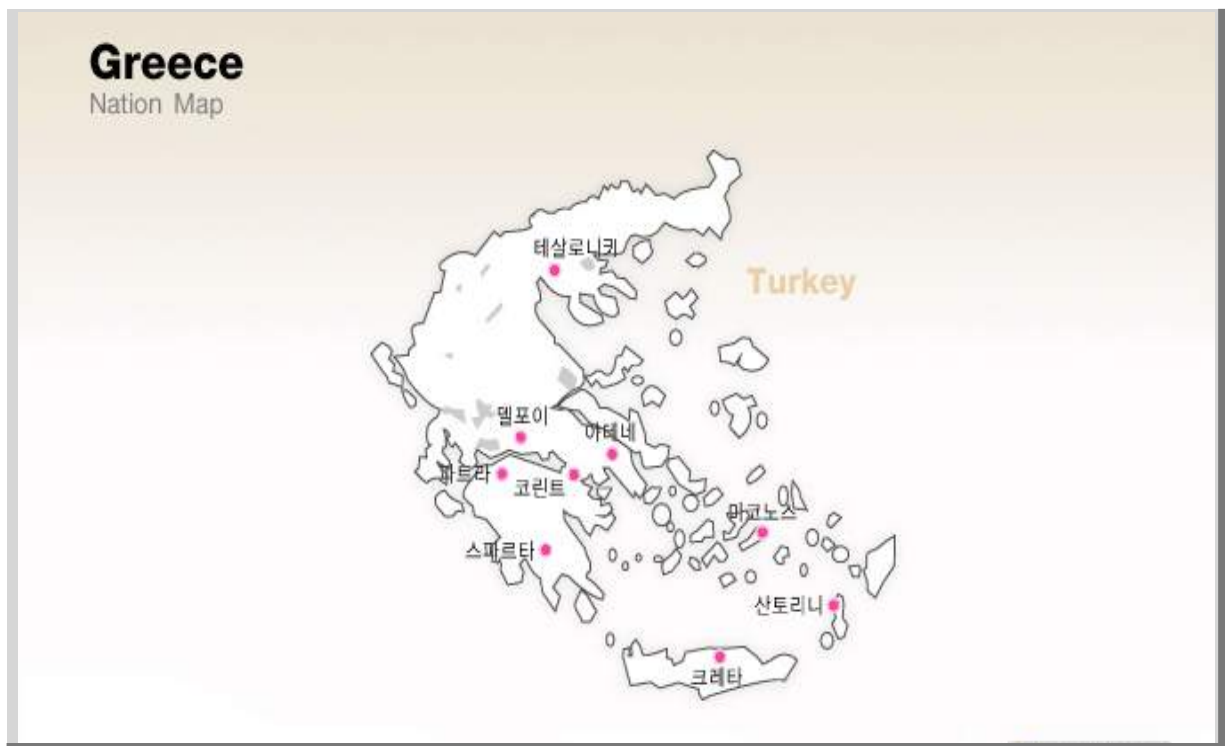
경제성장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중소기업들이 많은 실업자들을 흡수했고 제약회사 플리바는 중동부유럽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런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인플레이션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외환 보유고도 늘었다. 주요 지하자원은 원유와 천연가스로 이들 지하자원과 스플리트 수력발전소(22만kW)의 동력을 기초로 제강·정유·조선·철도차량·기계설비·정유·화학 등의 중화학공업이 발달해 있고 식품가공·제지·섬유·목재·전기·전자·의약품 공업 등의 경공업도 발달하고 있다. 토지이용에 있어서 농경지는 27.6%로 주로 옥수수·밀·보리 등과 과수가 재배되고 있다. 산림은 전국토의 35.6%로 잣소 등의 목축이 행하여진다.

주된 무역상대국은 독일·이탈리아·러시아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의류·자동차·수송기계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전기기계 등이다. 리예카와 스플리트는 이 나라 굴지의 무역항이고 자그레브로 연결되는 철도가 놓여있다.

2. 그리스 (Creece)

【 일반 현황 】

- ◆ 수도 : 아테네 (Athens)
- ◆ 정치 : 의회주의, UN / NATO / EU 가맹국
- ◆ 인구 : 10,775,643명(2015년 기준)
- ◆ 면적 : 131,957km²(한반도의 약 3/5)
- ◆ 주요도시 : 아테네, 테살로니케, 피레우스, 델포이
- ◆ 주요민족 : 그리스인(98%), 기타(2%)
- ◆ 주요언어 : 그리스어(Greek), 영어(English), 독일어(German), 프랑스어(French)
- ◆ 종교 : 그리스정교(98%), 이슬람교(1.3%), 기타(0.7%)



▷ 서양 문화의 기원, 그리스

유럽 동남부 발칸 반도의 최남단을 차지하고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딸려 있는 지중해연안의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에게해를 중심으로 그리스 문명은 현재의 서구 문명을 낳았다. 하늘색 바다와 태양, 푸른 올리브 나무, 하얀 건물로 많은 관광업이 발달되었다. 밝은 북쪽 국경을 따라서 서쪽부터 동쪽으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가 있으며 동쪽에는 터키가 있다. 그리스 본토의 남서쪽에는 이오니아 해, 남쪽은 지중해, 동쪽으로는 에게 해로 둘러싸여 있다

고대 그리스, 비잔티움, 현대 그리스의 3개 시기로 구분된다. 고대 그리스는 강력한 해양 문명이 번성한 시기이다. 호메르에 따르면 이 시기는 무역 경쟁으로 폭력과 전쟁의 시기였다고 한다. 기원전 11세기에 이르러서 일부 문명은 패망하였다.

기원전 800년에 이르자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진화로 인해 군대 문화가 강화된다. 뒤를 이어 “황금의 시대”라 불리는 번영의 시기가 도래한다. 이 시기 동안 페리클레스는 파르테논을 위임하였고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글을 썼으며 소크라테스는 젊은 아테네인들에게 논리의 정확성에 대해 강연하였고 민주주의의 전통이 탄생했다. 황금의 시대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에게 승리를 쟁취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 종말을 맞는다.

그리스는 세계사에 큰 유산을 남겼다. 현대 철학, 수학, 과학의 기초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예술과 토목 기술의 공헌도 빼놓을 수 없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민주주의와 서양의 가치관을 형성한 오늘날 서방 문화의 큰 일부를 창조하였다.

▷ 고대 그리스 문명 이후의 이민족 지배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이로 인해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립이 세력권을 확장하게 되었다. 필립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은 물론 페르시아를 거쳐 이집트에 그 세력을 뻗어나갔으며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를 자칭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건설하였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자 다문화의 헬레니오스 시대가 그 막을 펼쳤으며 도시적인 전통이 창조되었다. 로마인들은 기원전 205~기원전 146년까지 그리스를 수차례 침략하였으며 그리스와 마

세도니아를 로마 영토로 편입시켰다. 그리스는 12세기에 이르자 비잔틴 왕국의 일부가 되었으며 로마 제국은 기원후 395년 동부와 서부 제국으로 나뉘었다. 십자군의 위세를 떨치고 있었으며 여러 민족에 의한 침략으로 비잔틴의 세력은 점점 위축되었다.

1453년 투르크족은 비잔틴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손에 넣게 되었고 1500년에 이르자 그리스 대부분의 영토는 터키의 지배권 안에 속하게 되었다. 18세기 후반 문화의 재발현으로 터키에 대항하는 독립 전쟁(1821~32)이 일어났으며 1827년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독립 전쟁에 끼어들면서 그리스는 군주국이 되었다. 그리스는 1829년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다.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 그리스는 주변의 섬과 주민의 대부분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영토를 조금씩 회복하였다.

세계 2차 대전 중,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침략(1940)하였고 후에 독일이 그리스를 점령(1941~44)한다. 1949년 독립 전쟁 중 공산당은 왕의 지지자들에 패배하였고 그리스는 1952년 나토에 가입한다. 1967년 군부 독재는 정치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로 왕을 그리스에서 몰아내는 등 7년동안 계속되었다. 1974년 자유 선거와 국민 투표로 의회 공화국이 탄생되었으며 군주제는 폐지되었다. 그리스는 1981년 오늘날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공동체 국가가 되었으며 2001년 유로 지역의 1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및 IMF 구제금융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에 따라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한 그리스는 2010년 5월(1,100억 유로) 및 2011년 7월(1,300억 유로) 두 차례의 지원을 받고, 2015년 7월(860억 유로) 제3차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으나, 경제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위기의 국내적인 원인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 저하(부재), 정치권·NGO·노조 등의 부패와 탈세, 경직된 복지 시스템, 과도한 국방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에 따른 재정통합 없는 통화통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위기에 따라 2008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2008년 대비 GDP가 25% 감소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의 긍정적 효과와 내수경기·금융시장 등의 점진적 회복을 통해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실업률은 24.9%, 청년 실업률은 49.8%로서 유럽 최고의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동 고실업률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5년 한 해 동안 그리스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이주민은 대부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출신으로 대략 100만명으로 추산되며, 2016년 1월-12월초간 171,909명의 난민·이주민이 그리스를 통해 유입되었다. 2016.3월 EU-터키간 난민합의로 유입 난민 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현재에도 약 6만여명의 난민이 그리스 전역에 산재하고 있다. 향후 그리스 난민문제의 효과적인 대처 여부는 향후 EU-터키간의 원만한 난민합의 전제조건 이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리스의 잠재력 - 바다와 섬

그리스는 바다로 둘러싸여 , 6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지리적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많은 섬들이 도시화로 인하여 삼림자원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주변 바다와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해운업이 발달한 국가이다. 2016년 11월 발표된 UNCTAD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는 전 세계 상업 선박(용적 기준) 16.36%

를 보유하여, 세계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유선박 수도 2015년 4,017척에서 2016년 4,136척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의 전통적인 주요 산업인 관광업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스 중앙은행은 2016년 1-9월간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나, 관광 관련 수입은 오히려 5.5% 감소한 것(127억 유로→120억 유로)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호텔업계의 큰 폭의 할인 제공, 부가가치세 인상 등에 따른 탈세 가능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1-9월간 그리스의 수출은 183억 유로로서 전년 (190억 유로)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약품, 올리브오일, 치즈, 생선, 야채, 과일, 면화 등이다. EU는 2017년 그리스의 수출이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스는 현재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이어오는 소중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지리적·기후적 조건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자부심이 높은 지역이다. 현재 경제위기 속에서 그리스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동지중해 가스를 유입하여 유럽 대륙으로 연결하는 사업에 적극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남유럽 가스관 허브로 부상하려는 계획을 보유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리스에 매년 한국 관광객 5만여명 이상이 방문하고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연간 1,313백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Ⅱ

연수내용

1. 주요 방문기관 및 논의내용

□ 두브로니크 시청

명 칭	두브로브니크 시청 복원 연구소
접 촉 자	PAVO FRANICEVIC
날 짜	12월 16일 -10:00
소 재 지	Pred Dvorom 1, 20000 Dubrovnik
연 락 처	Telepon : +385 (0)20 351 811
홈페이지	Website : http://www.dubrovnik.hr/

< 주요 논의 내용 >

-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두브로니크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 전쟁 이후 복구를 위한 시 도시계획의 주안점은 무엇이었는지
- 전후 도시 복구,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 전후 복구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시민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 현재에도 크로아티아-보스니아 국경에서 난민,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지
- 크로아티아-보스니아 국경지대 가까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 평화를 정착한 두브로브니크 발전의 미래 비전

□ 유엔 난민기구

명 칭	UNHCR 크로아티아 난민 기구
접 촉 자	Mr. Jan Kapoc, Ms. Jasan Barberic
날 짜	12월 19일 15:00
소 재 지	10000 Zagreb, Radnicka cesta 41/VII
연 락 처	Tel : +385 1 3713 530
홈페이지	Website : http://www.unhcr.org

< 주요 논의 내용 >

- 유고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의 현황 및 지원해온 과정은
- 난민 지원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 난민 지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 사항은
- 현재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한 유럽지역 난민 문제 현황은
-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난민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방법은
- 현재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세르비아-보스니아-크로아티아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은
-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의 역할은
- 난민 감소 및 난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방법은
- 민족간 전쟁을 겪었고 현재에도 국가가 분단되어 있는 한국 상황에서 접경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은

□ 그리스 해양부

명 칭	Ministry of Shipping and Island Policy (Greece)
접 촉 자	Panagiotis Kouroumbilis
날 짜	12월 22일 -10:00 요청
소 재 지	Akti Vassiliou gate 1. Athens.
연 락 처	213-1371700
홈페이지	https://www.yen.gr/web/guest/epikoinonia

< 주요 논의 내용 >

- 그리스 정부의 중장기적인 섬 발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그리스의 섬이 국가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 섬 정책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며 어떤 성과를 거두어 왔는지
- 특색있는 섬 만들기, 주민 소득 증대, 섬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 섬에 거주하는 사람과 육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활여건 격차는 어느 정도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 선박을 통한 섬의 해상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
- 그리스 미래 섬 발전을 위한 비전은

2. 연수 세부내용

① 두브로브니크 시청(두브로브니크 복원연구소)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지상에서 진정한 낙원을 원한다면 두브로브니크로 가라’ 라는 말을 남겼고, 영국의 시인 바이런 경은 ‘아드리아해의 진주’라고 극찬한 유럽 최고의 휴양지가 바로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크로아티아 주민들의 삶은 어떨까? 어떻게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가 어떻게 부각되었을까? 이러한 궁금한 점을 간직한 채 첫 번째 공식방문지로 ‘두브로브니크의 복원연구소’를 찾았다. 전쟁의 상처가 남아 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울 줄 알았는데 먼저 미소를 보내주며 우리 방문단을 즐겁게 맞아 주었다.

복원연구소는 1979년 크로아티아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시 자체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한다. 연구소의 운영 재원은 국가(30%), 두브로브니크시(55%), 두브로브니크주(15%)에서 지원하며, 복원연구소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과거와 현재와의 연계 추진’을 중심으로 최대한 과거의 축적된 자료를 통해 돌조각 하나하나도 옛 형태대로 복원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91년 발생한 유고내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브로브니크 내 성곽 및 상당수의 건축물들이 파손되었는데(지붕 파손 69%, 간접파손 20%, 소규모파손 11%), 이에 대한 복원도 관공서뿐만 아니라 개인 건축물도 복원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한다고 한다.

전쟁의 아픔을 거쳐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문 조직 구축 및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은 본받을만하다.

다만, 복원을 법적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일률적인 복원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숙제로 남을 것 같다.

Q&A 1**전쟁으로 인하 세르비아-크로아티아 간 관계는?**

크로아티아는 유고내전의 당사자인 세르비아에 대한 적개심은 없으며,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Q&A 2**복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없는지?**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많으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Q&A 3**크로아티아 지역은 지진 발생이 많은 지역인데 지진대비 사항은?**

우리 복원연구소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진 발생 지역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과거 모습 복원 시 내진설계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음

Q&A 4**복원시 EU 차원의 지원은 있었는지?**

EU 차원의 지원은 없었으며, 개별 국가별 지원은 있었다.



두브로니크 시청 방문 및 토론

② 모스타르 내전 현장

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를 출발 크로아티아~보스니아 국경(네움)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목적지인 모스타르로 갈 수 있다. 차량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경험은 생전 처음인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가는 것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모스타르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위치하여 두브로브니크로부터 140km 떨어진 곳으로 네레트바 강에 위치한 도시로서 15, 16세기 오스만국의 전초기지로 건설되어 19, 20세기 오스트리아 헝거리 제국시대에 크게 발전된 도시다.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간직한 나라로서 도시 전체가 크로아티아와 달리 총탄자국이 보이는 파괴된 건축물, 시민들의 어두운 표정 전쟁이 종전된 지 20여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침체되어 있는 듯하다.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듯하다.



모스타르 내전의 상처 : 좌)아파트 총탄 자국, 우) 파손된 건축물

모스타르 시내를 걸어서 10여분 가면 보스니아 내전이 한창이던 1993년 11월 9일 크로아티아 공습으로 무너졌다가 2004년 세계 각국의 지원으로 재건된 ‘모스타르 다리’가 보였다.

1566년 건설된 이 다리는 카톨릭을 믿는 크로아티아계와 세르비아 정교를 믿는 세르비아계 및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들이 강을 사이에 두고 오순도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그렇게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를 이어줘 온 이 다리는 이 지역 사람들의 관용과 단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고내전 때는 서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다리의 상징으로 파괴되었었다. 현재 전쟁의 상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다리는 국제적인 협력과 다양한 문화적·민족적·종교적 공동체의 공존과 화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③ UNHCR 크로아티아 난민 기구

UNHCR(유엔난민기구)의 설립은 1920년대로 러시아 혁명 이후 발생한 난민,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발생한 난민들을 비롯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약 120만 명의 유럽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을 임명하고 난민문제를 초국가적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연맹의 뒤를 이어 탄생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국제연합 구호 및 재건기구(UNRRA, 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와 국제난민기구(IRO,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를 각각 1944년, 1947년에 설치하여 긴급구호, 법적 보호를 통해 난민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IRO는 시대적 정치 상황과 맞물려 여러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얻지 못하였고 유엔은 새로운 난민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1949년 12월 유엔총회 결의문을 통해 유엔총회의 보조기관으로 UNHCR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영구적인 기구의 설치로 인한 정치적 영향에 대해 여러 나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1951년 1월부터 3년 동안 운영하는 한시적인 기구였다.

UNHCR의 주요 임무로는 비정치적,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UNHCR의 임무는 유엔총회에서 3년마다 연장되어 오다가, 2003년에 난민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 117개국 7,500명 근무



UNHCR 크로아티아 난민기구 건물 전경



UN 난민기구 방문 및 토론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국 내 문제로 인한 피난처, 망명, 전쟁 피난, 미국적자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난민 기구에 대한 역할과 그 간의 추진경위를 듣고 보니 언론매체에서 보고 듣는 것보다 생생히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UNHCR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내전 등으로 인하여 '92년부터 난민(약 90만명)이 급증하고 있으며,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유엔난민기구가 국가별 난민 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분에 24명의 난민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역할이 대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문제는 남 일이 아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으며, 현재도 중국 국경을 통한 북한 난민들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주변국들과의 협조체계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비극적인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제정(2012.2.10.)한 국가임

Q&A 1

유고 전쟁 이후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유고 내전 전후 '92년부터 약 90만명의 난민이 급증하였으며,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교육지원, 난민이 원하면 타국에서 자국으로 이동하도록 노력, 국가별 난민 배정 작업 등 노력을 하였음.

Q&A 2

넘어오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방법?

난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 학교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크로아티아 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추진하고 있음

Q&A 3

난민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준비업무는?

난민은 종교, 인종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한다.

4 그리스 섬정책 현장

① 그리스 섬의 현황 및 개요

▷ 그리스의 바다와 섬

그리스의 섬은 6,000여개에 달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50,557km²에 이르러 우리나라보다 다소 크다. 그리스의 2500년전 해양학자는 “바다를 잡는 자가 모든 것을 잡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바다와 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역량을 집중했다. 그리스의 섬은 전체 본토면적의 19%에 해당하며 인구비율을 13~15%에 이른다. 우리나라 섬의 인구가 전 인구의 1.6%에 이르지 않음을 감안하면 섬의 인구비중이 상당한 편이다.

▷ 그리스 섬의 고대 문명

섬에서도 많은 문명이 탄생했다. 기원전 2000년경에 크레타섬에서는 청동기에 기반을 둔 문명이 발전하여 에게해를 장악하였다. 크레타섬은 지중해의 동쪽에 위치하여 이집트 등 오리엔트 문명권과의 교류가 있었다. 크레타 섬의 면적은 8,247km²으로 제주도의 4.5배에 이르는 큰 규모인데다, 평야가 많아 농사에 유리해 문명이 발전하기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또한, 지중해인과 소아시아인들이 함께 섞여 상호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였다. 문명이 성숙하면서 섬 내의 여러 세력들이 통합되어 크노소스를 중심으로 하여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으며, 미노스 왕이 섬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정치·군사·예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또한 동부 지중해의 교역을 독점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발전해나갔다. 당시 크노소스는 인구 8만의 대도시였으며, 이 일대의 정치·문화·무역의 중심으로 번성하였다. 크레타는 BC 1400년경에 그리스 본토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크노소스를 비롯한 각지의 궁전은 파괴되었으며, 주민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에게문명의 중심

은 이후 그리스 본토로 옮겨가게 되었다. 크레타 섬의 문명으로 인해 그리스의 섬은 지금까지도 고대 문물의 신비함을 간직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 섬의 특징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주민들

그리스에는 크레타섬 이외에도 에비아, 레스보스, 로도스, 케팔로니아, 키오스, 케리키라 등 면적이 500km²를 넘는 섬이 7개에 이른다. 이 섬들은 육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연륙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섬만의 독특한 경관과 특징을 유지해 가고 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섬을 관찰하면서 그리스의 섬은 육지와 연결 교량을 잘 건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스 본토와의 거리가 불과 수백 미터에 불과한 포로스 섬의 경우에도 연륙 교량을 건설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섬으로서의 특별함을 극대화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는 그리스의 섬이 갖는 관광으로서의 가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스의 섬은 유서 깊은 역사, 깨끗하고 조용한 자연환경, 쾌적한 기후 등으로 유명하다. 섬 주민들은 연륙되었을 경우 이와 같은 섬의 매력이 사라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섬 주민 지원 정책

그리스에서는 섬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3,000명 이하 거주 섬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부가세의 30%를 면제해주는 혜택으로 섬의 관광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 그리스 섬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섬에서 유럽 각 도시로 연결되는 항공편으로 인해 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리스 경제위기의 여파로 2016년 여름부터 본토와 비슷한 부가세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그리스 섬의 관광사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치프라스 총리는 최근 섬의 부가세 면제 혜택을 다시 검토하기로 의사표명하기로 하였고 한다.

그리스 섬은 관광에 특화되어 있다. 그리스 전체 호텔을 100%라고 할 때 그중 60%가 섬에 분포되어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섬에 가면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여름철 성수기만 되면 섬으로 일자리를 얻으러 이동한다고 한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50% 가까이에 이른다. 2010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에서는 핵심 인력층 50만명이 외부로 나갔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섬에서의 일자리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계기가 된다. 그리스는 섬에서의 관광업을 외화를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보고 섬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관광부를 중심으로 '태양과 바다'라는 모토로 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스 섬은 지중해 기후로 인해 여름철에 건조하면서도 상쾌한 기후로 그 매력도가 높다. 또한 청정해변이 350개에 이를 정도로 바다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경제위기로 줄었던 관광객은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리스-터키 구간의 4박 5일 크루즈를 비롯해 지중해의 여러 크루즈 노선이 그리스 섬을 들리는 항로를 운항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에 따르면 2002~2014년간 크루즈 관광객이 300% 증가하여 매년 220만 유로의 정부 수입이 최근 3년사이 400만 유로로 증가했다고 한다.

▷ 특색있는 섬 만들기

그리스에는 특별한 모습을 가진 섬이 많다. 아카리아 섬은 장수섬으로 유명하다. 건강석과 도보,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관광객이 참고 있다. 알로니소 시 섬은 의료 섬으로 특화했다. 약초가 많은 섬의 특성상 바닷물에서 약초의 향내가 난다는 컨셉으로 섬을 홍보하여 병원과 휴양치료 시설이 들어섰다. 이런 시설로 인해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노인 요양원도 설치하여 유럽 지역의 은퇴자들을 불러 모으기도 한다.

잘 알려진 산토리니는 주민과 정부의 협조가 돋보이는 섬이다. 주민들은 산토리니의 대표적인 하얀색 집과 파란색 지붕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한다. 주민 청소부들은 새벽부터 청소에 들어가서 관광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또한 매년 봄만 되면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힘을 합친다. 상점가의 거리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깨끗하게 진열하기 위해서 자정노력을 하고 있고 가격 덤핑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규제한다. 정부도 산토리니를 세계적 관광지로 알리기 위해 협력한다. 관광청과 산토리니시청도 섬을 풍경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섬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② 연안 섬 연계 방문

▷ 섬을 찾는 풍부한 연안 여객 수요

그리스의 섬에 대한 방문 수요가 높다보니 아테네 항에서 연안 섬을 둘러보는 항로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 산토리니, 크레타 같은 멀리 떨어진 대형 섬으로는 크루즈에 버금가는 1만톤 급의 큰 배들이 정기항로로서 운행한다. 비행기로 이동하는 요금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 이와 같은 배를 타고 밤에 출발하여 아침에 도착하는 여정으로 섬까지 당도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천-제주 노선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섬의 관광 수요가 높기 때문인지 고급 크루즈선 못지 않은 상태의 배가 운항하기 때문에 주민 외에 관광객에게도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 연수단은 아테네항을 출발하여 하루 동안 인근의 포로스-에기나-이드라 섬을 돌아보는 섬 방문 선박에 탑승하였다. 에게해의 푸른 바다 사이로 선박이 운행을 시작하였다. 12월의 겨울 바람은 꽤 찬 느낌이 있었지만 갑판에 나가서 바다 바람을 맞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겨울철에도 기본적인 관광이 가능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은 갖춘 것 같았다. 선박은 2000톤 정도의 규모였으며 내부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 있었으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이 한군데, VIP 손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롭게 차와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듯한 분위기였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했으며 가족 단위로 방문 온 외국인들도 꽤 많았다. 전체적으로 단체로 이동하면서 소음을 일으키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쾌적한 상태의 내부 환경이 유지되었다. 갑판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테이블과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벤치 등이 놓여져 있었다. 선박은 물때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쾌적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스 바다의 특징은 염도가 낮아 물때가 잘 끼지 않고, 바다 환경도 깨끗하게 보존되어 쓰레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선박과 어선을 포함해서 쾌적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듯이 보인다.

▷ 다채로운 스토리를 보유한 포로스 섬

먼저 도착한 포로스 섬은 육지와 500m도 안되는 거리로 가까운 섬이었다. 포로스 섬은 그리스 본토의 메사니아 화산의 폭발로 육지 가운데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육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생긴 섬이다. 포로스라는 뜻도 어원은 좁은 구멍을 의미한다고 한다. 섬에 내려 바라봐도 필로폰네소스 반도의 갈라타스 마을이 바로 마주보였다. 섬 한쪽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모신 신전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섬 면적은 23km² 가량이고 주민은 약 4000명이다.

포로스 섬은 아테네에서 가까워서 아테네 사람들의 휴양지로 즐겨 찾는다. 아테네에서 유람선을 타고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다. 중앙의 고원에 있는 칼라브리아는 지금은 폐허가 된 포세이돈 신전(BC 6세기)으로 유명했고, 고대 그리스의 해양 국가들이 결성한 도시 국가 동맹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이곳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자살했다. 동로마 시대에는 로스와 인근의 섬들이 에게해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적들의 본거지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 후 오트만 대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는 독립을 이루었다. 오트만 대제 하에서는 관세 장벽이 없어, 러시아 군인들, 상인들, 군함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포로스는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화약과 석탄, 식량 창고, 식량 공장도 건설되었다.

그리스의 독립 후에 정부는 그리스 군함들의 출입을 허용하기 위해 연안 부근 다른 지역을 러시아에 사용하도록 주었다. 19세기에 걸쳐 러시아가 사용했던 기간시설들은 더욱 새롭고 넓게 확장되었고 러시아 주거민들의 수가 급증했고 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렇지만 점차 러시아 군함의 활동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러시아의 경비만이 남게 된다. 1828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전권사절들이 포로스 섬에서 만나 그리스의 장래를 논의했다고 한다.

포로스는 1827년 그리스 독립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현대적인 그리스의 첫번째 해군 기지였고, 이후 1881년 Salamis Naval 로 모든 해군이 이동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항해사들의 훈련기지로서, 헬레닉 군함이 왕래하고 있다. 섬 마을은 평온하고 쾌적하지만 많은 역사가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 해상 운송 종사자 면담

선박은 포로스에서 일정 시간을 머무르고 조금 먼 바다에 있는 이드라 섬으로 향했다. 이드라 섬까지 가는 동안에는 선박의 운항 책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섬까지의 해상 운송에 관해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섬의 아테네의 피레우스 항구에는 이와 같이 연안의 섬을 운행하는 선사가 2군데 있고, 모두 정부의 보조 없이 민간 사업으로 운행된다고 하였다. 겨울철에도 꽤 많은 승객들이 탑승한 것으로 보아 여름철 성수기를 감안시 사업성이 확보되어 있었다.

Q&A 1**선박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는 세계 1위의 해운 역사를 보유한 국가로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받고 있음.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이수하고 통과해야 운항이 가능

Q&A 2**섬 주민들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섬 주민들은 섬을 특색있는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이드라 섬은 1962년 당나귀만 다니는 섬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음. 오늘날까지 이드라는 차 없는 섬으로 당나귀와 도보만으로 섬 내에서 이동하여야 함. 이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

Q&A 3**선박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아테네 피리우스 항에서 인근 섬을 운항하는 선박 회사는 2곳 있으며, 2곳 모두 정부의 보조 없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음.

Q&A 4**선박 회사 차원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각 섬에는 유서깊은 유적들과 풍경들이 있어서 이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선박에 내려서 자유롭게 도보로 주변을 돌아볼 수도 있지만 선박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별도 비용을 내고 이용해서 섬의 안쪽까지 들어가 볼 수도 있음



선박운항 종사자 간담회

선박 운항 책임자와의 면담을 마치고 먼 바다로 나오자 파도가 거세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이드라 섬까지의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배 안에서 우리 일행들도 배멀미로 크게 고생하였다. 맑은 날 지중해의 바다도 풍량이 심해 배가 접안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자, 바다라는 것은 결코 쉽게 볼 것이 아니고,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이드라섬까지 가다가 돌아온 배는 육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에기나 섬에 마지막으로 도착하였다. 도착 중에 물살이 잔잔해지자 선상에서 식사를 제공하였다.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간단히 먹는 형태로, 이와 같이 배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으로 짧은 크루즈의 느낌을 내게 하는 관광 상품이 가능해보였다.

▷ 깨끗한 바다와 마을 풍경, 에기나 섬

에기나 섬도 이 일대의 다른 섬들과 마찬가지로 일찍이 상업이 발달하여 B.C. 6세기~B.C. 5세기 초에 걸쳐 번영의 절정을 이루었다. 섬 동쪽 편에는 유명한 도리아 건축양식의 시초로 유명한 아피아이 신전이 있다. 문명의 전성기에는 탁월한 조각가도 많이 배출하였다. 독립된 도시 국가로 한때는 아테네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을 정도로 그 세력이 막강하였다고 한다.

에기나 섬의 항구에는 많은 어선과 요트들이 정박해 있었다. 항구 주변으로는 깨끗한 카페들이 보기 좋게 늘어서 있어서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스의 섬 마을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화려하거나 우수한 것은 없었다. 다만, 거리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부두가 잘 정돈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에게 좋은 느낌을 주었다. 섬 마을의 좁은 골목골목도 따라서 걷기에 좋을 정도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공간

이었다. 우리나라 섬들도 해안 경관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좁은 골목, 비탈길의 특징을 살려 나간다면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에기나 섬의 풍경



포르로스 섬의 부두 풍경



깨끗한 만의 모습



선착장의 모습

5 그리스 해양부

① 그리스의 섬

▷ 섬 정책을 관장하는 그리스 해양부 방문

그리스 해양부는 피레우스 항구 옆에 위치해 있었다. 세계 최고의 해운 국가답게 해양부의 규모가 컸다. 그리스의 해양부에서는 그리스의 선주들이 한국의 조선사에서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섬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희망하였다. 3000개의 섬을 가진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섬 정책과 방향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섬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

그리스의 섬은 무인도를 포함해서 총 6000개로서 이중 거주민이 살고 있는 섬은 127개 가량이라고 한다. 그 외에는 무인도로서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주민 섬이 대략 470여개임을 감안하면 유인도의 경우 우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었다.

해양부에서는 몇가지 주제별로 그리스 섬 정책 현황을 논의하였다.

▷ 섬과 섬의 교류

첫째는 섬과 섬의 교류, 섬과 본토의 교류 문제이다. 섬간의 교류는 정보, 생필품, 물품 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 문제이다. 멀리 떨어진 섬일수록 교통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이로서는 부족하다. 특히 거주민이 작은 섬의 경우 정부기관도 없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다. 그리스 해양부는 그런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선박 티켓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거주민이 많은 섬에 대해서는 불구자, 다자녀 가구 등에 50% 할인 티켓을 제공한다. 일반 섬 주민들에게는 정상적으로 티켓을 지불하고 움직이도록 한다. 이에 따라 섬 주민이 교통에 사용하는 비용이 매우 높다.

그리스 해양부는 멀리 떨어진 가시텔로리조 섬과 람모스 섬을 예로 들면서 이 섬의 주민들이 본토까지 오려면 배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본토 방문시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하였다. 먼 섬에서 아테네까지 오려면 100유로 정도가 소모된다고 한다. 그리스

해양부는 이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였다. 섬 주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납부함에도 모든 면에서 본토 사람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100km 이동을 가정할 경우 섬 주민들은 150유로를 지불해야 하고 본토 사람들은 10유로만 지불해야 한다. 이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스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로존에는 교통평등조절법이 있어 평등하게 모든 것을 지불하는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이 코르시카 등 원거리 섬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그리스에는 유럽 공동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 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교통평등제도는 본토에 있거나 섬에 있거나 관계없이 주민, 상품이 이동할 때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각 나라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이며, 유럽의 부국들의 경우에는 경제위기가 없어서 문제가 없지만 그리스는 경제위기 속에서 지원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해양부에서는 3~4차례의 단계적 지원책을 감안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거주민 1,000명 이상인 섬부터 지원하고 다음은 2,000명, 그 다음은 3,000명 이상인 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민이 부담하는 내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완화를 통해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실시중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가 대상으로서 도서민에 대해 운임의 20%를 지원하되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흑산도 등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에도 싼 가격으로 육지와 왕래할 수 있다. 이 제도에 의해 연간 도서민 이용객 37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14.7.1부터는 차량 운임의 20%에 대해서도 정률 지원중이다. 한편, 사업성 부족으로 선사가 여객선 운

항을 기피하는 항로의 운행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낙도 보조항로를 지정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중이기도 하다.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위해 그리스와 우리나라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정책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섬 주민 교통지원 정책이 도서민에게 한층 폭넓게 지원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섬의 규모가 그리스에 비해 작고, 전체 인구대비 섬 거주 인구가 그리스에 비해 작은 데에서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도서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육지 또는 인근 섬과 오고갈 수 있도록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선박 교통과는 별도로 항공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리스의 섬은 외국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많고, 섬간의 거리가 멀어 항공교통도 발달하였다. 그렇지만 항공료가 비싸서 멀리 떨어진 람소스 섬까지 왕복에 350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원거리 섬들 주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정부는 항공 교통료를 할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편리한 섬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섬의 수자원 문제

두 번째 주제로는 섬의 수자원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스 섬의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지하수가 고갈되어 아무리 굴착을 해도 물이 안 나오는 섬이 많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해수담수화를 섬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물이 많은 지역에서 없는 지역으로 물을 이동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해수담수화는 기계 고장의 문제점이 있다. 고장으로 인한 부품 교체가 필요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육지에서 기술자가 선박으로 이동해야 하

는데 그 시간동안 물 공급이 중단된다. 해수 담수화 외에도 급수선을 이용해 물을 공급하는 전통적 방법이 있지만 운반 비용이 고가인 점이 문제다 1톤의 물을 운반하는 데에 13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급수선은 30년째 사용해온 방법이다.

최근 그리스 해양부는 해수담수화를 민간 운영으로 위탁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각 섬마다 민간이 경쟁해서 최대한싼 가격으로 담수를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물공급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이럴 경우 고장이 나도 회사의 책임하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그리스 해양부는 해수담수화 위탁에 한국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저수지 개발, 탱크 비축, 해상터널을 통해 물 운반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의료, 교육, 일자리 등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세 번째 주제는 섬 주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것이었다. 우선, 의료 문제를 논의하였다. 주민이 소수인 섬은 병원 건립이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빨리 병원이 있는 섬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만들고 작은 섬에는 보건소 같은 소규모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섬 주민의 교육 문제도 양국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다. 그리스에도 한 섬에 어린이가 3~5명밖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 교육의 원칙은 이럴 경우에도 교사를 보내 교육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더 큰 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리스의 섬은 규모가 커서 섬 내에 국립대학도 있었다. 에게해 대학은 학과를 섬마다 분포시켰다. 또한 이오니아해에는 이오니아 대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섬 학생들이 섬에 있는 대학을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섬의 일자리 문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어 섬 발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투자하고 있다. 소득 증대의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 의료, 지도자 양성 체제 구축에 이러한 자금을 투입하여 섬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 섬을 가꾸고자 하는 그리스의 의지

마지막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광객 증가로 섬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데 작은 섬에서 큰 섬으로 쓰레기를 옮겨서 소각할 때 주민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간 상호 협력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생각한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한다.

해양부에서는 논의의 말미에 그리스 헌법 101조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스 정부는 본토민보다 섬 주민에게 더 많은 흥미를 가져야 한다”라는 조항이 그것이다. 섬을 사랑하는 그리스 인의 마음이 잘 담겨진 헌법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스의 섬이나 우리의 섬이나 가지고 있는 고민의 주제는 비슷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섬간의 교통, 물, 의료, 교육, 일자리 문제는 우리 섬에서도 고민하는 문제여서 외국의 사례와 지혜를 참고할 수 있었다. 그리스의 섬의 경우에는 관광업이 우리나라보다 발전했고, 어업은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크지 않다. 또한, 규모가 크고 왕래가 많아서 물, 쓰레기 등 생활 필수 요소에 대한 고민을 더 크게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주민 소득·일자리, 복지·의료·문화·교육 분야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 적극 발굴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2018~2027년간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주민

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주민 거주 마을 투자 집중 유도, 범부처 참여 종합적 섬발전 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스의 섬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10개년의 도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물이 남는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섬간에 물을 공유하는 계획, 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섬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획, 섬 사이의 교통을 개선해서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통해서 우리 섬도 광역적 성격의 섬발전 협력사업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개별 섬 단위의 개발 사업, 소득증대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 섬이 서로 협력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좋은 정책적 참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Q&A 1

우리 섬도 교통, 에너지, 물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생필품 물류 운임비를 보조하고 해수담수화를 지원하고 섬과 섬사이 상수관로를 개설하는 작업도 하고 있기도 하다. 한 광역지자체의 경우 190개의 유인도가 있고, 24개는 관광섬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광을 육성하는 데에 대해서 섬이 가진 모습이 훼손된다는 우려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에서는 주민들과 섬 발전방향을 어떻게 소통하였는지?

그리스는 섬에서의 관광업을 발전시킬 때 섬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득했음. 섬에서의 호텔과 식당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함

Q&A 2**섬 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은?**

큰 프로젝트의 공모는 중앙정부가 추진함. 지자체는 작은 정부로서 개별적인 사업의 추진은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짐. 자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을 유도하고 있음

Q&A 3

우리나라 한 지자체에서는 해수담수화를 하면서 물탱크를 같이 만들어 3일간 물을 저장하도록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주민 중 한명이 정비 기술을 익혀 간단한 고장은 즉각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스에서도 이와 같은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떨지?

그리스에서 현재 공모하고 있는 사업은 각 회사에서 모든 것을 전담하게 하고 있음. 회사가 신속하게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임. 주민이 기술을 익힐 경우 그 사람이 외부로 이동해 있으면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안됨. 한 회사에 책임을 맡기고 제일 빠른 속도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스 해양부 면담 및 섬 정책 방향 토론

① 전쟁으로 인한 소중한 문화유산 복원

▷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 폭풍우, 화재, 기상이변 등의 자연적인 요인 및 전쟁 등의 사유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가 파괴되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91~95년 유고 내전으로 인해 상당수의 문화재가 파손되었으나, 문화재 복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복원을 추진하고 있고, 성곽, 건축물의 기둥·문양 등 섬세한 부분까지 방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놀랍기만 하다. 아, 이래서 크로아티아의 세계문화유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이유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또한 많다. <종묘>(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불국사·석굴암>(1995년), <수원 화성>(1997년), <창덕궁>(1997년), <경주 역사유적지구>(2000년),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하회·양동마을(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등 12건이다.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침략, 6.25전쟁 등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고 파괴되었었다. 또한 최근에 국보1호인 남대문이 방화로 소실되었다. 그 이후 남대문을 복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총 동원해 복원에 노력하였지만 복원 과정 중 단청기법, 기와 등에 대한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기도 했다.

복원은 문화재의 훼손 정도가 심각해 원형에 가깝도록 보충 및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정확한 고증을 해야 하고 재질, 형태 등을 파악해 복원을 해야 하는 만큼 전문 인력 및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전쟁 피해로 인해 파손된 문화재 복원 계획(두브로브니크 복원연구소)

②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체계 유지

▷ 과거를 잊으면 미래에 그 잘못을 되풀이한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전쟁과 박해 등 외부적 요인으로 고향을 떠나 난민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6,530만 명(어린이 51%)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3억 4,9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113명 중 1명꼴 난민인 셈이다.

발 뺀고 누울 곳 하나 없는 차디찬 바닥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이 없어 배급되는 식량을 기다리고 있는 난민들의 모습을 보면 전쟁의 폐해를 절실하게 느낀다. 불안감, 공포 등을 안고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곳은 찾아 헤매는 난민문제는 국제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50.6.25.일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언론 및 사진자료 등을 통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6.25전쟁으로 인한 피난 행렬

6.25 전쟁이 발생한 지 60여년이 흘렀으나 가족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이산가족은 71만 명이며, '16.12.31일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수는 약 13만명(사망자 약 7만명 포함)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6.25전쟁 때 피해를 입은 국토를 복구하기 위하여 세계 각 국에서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세계 각 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 철학자 산타야나는 '과거를 잊으면 미래에 그 잘못을 되풀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의 슬픔을 안고 부모, 형제

자매 등을 보지 못한 이산가족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전쟁이란 불행의 씨앗이 한반도에 싹트지 않게 국제공조 및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③ 섬 관광 활성화

▷ 우리 섬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의 섬은 전세계인이 그리는 관광지 중의 하나이다. 파란 바다와 하얀 집, 통일된 색깔의 지붕으로 연상되는 풍경은 모두의 환상을 자극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그리스에 섬 현장을 방문하고 우리 섬 정책에 적용할 요소를 고민하면서 느낀 점은 바로 우리 섬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스의 섬이 보유하고 있는 굴곡진 지형, 깎아지른 언덕, 그 위에 빼곡하게 지어진 집들은 우리나라의 섬도 보유하고 있는 풍경이었다.

오히려 아기자기한 굴곡을 이루고 숲이 푸르른 우리나라의 섬이 훨씬 아름답다는 느낌도 들었다. 섬의 개수에서도 유인도는 우리나라가 더 많을 정도로 우리가 더욱 다채로운 자원을 가지고 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 사시사철 좋은 날씨와 태양 등 기본적인 환경과 기후 조건은 그리스가 더욱 우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섬의 풍광으로는 우리나라가 더욱 뛰어난 점도 있었다.

아테네 항에서 섬으로 향하는 배 편은 대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였다. 섬으로 향하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 선박도 대형화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다. 또한, 섬 내부에도 고급 호텔부터 싼 민박까지 숙박 시설이 발달되어 있었다. 이처럼 관광객이 많이 찾다보니 교통과 숙박에 있어서 시설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그리스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섬도 이와 같이 교통과 숙박에 있어서의 쾌적함만 갖추 수 있다면 천혜의 지형 조건과 풍광으로 외국인들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 섬과 바다를 깨끗하게

그리스의 섬과 우리나라 섬의 큰 차이점은 바로 깨끗함의 정도였다.

천혜의 기후조건과 더불어 그리스 섬의 해안가와 부두가에서는 우선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부두에서 물을 내려다보면 바닥이 흰히 보일 정도로 물이 맑았다. 페 스티로폼이나 생활쓰레기 등 오염 물질도 보이지 않았다. 물위에 뜬 기름이나 기름 냄새도 보이지 않았다. 하수구도 바다로 직접 연결되는 곳은 없었다. 또한, 거리의 풍경도 깨끗했다. 상점들은 간판을 크게 걸어놓지 않아 건물 자체의 통일된 색과 멋이 돋보였다. 상점 앞에도 주차된 차량이나 외부로 내놓은 식탁 및 집기 등이 없어 어지럽지 않고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 작업을 하는 어선들에서도 페타이어 같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 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범퍼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쾌적함이 있으니 섬이 가진 자연적 지형과 환경이 더욱 풍부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섬도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을 갖추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은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섬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통일된 거리 풍경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섬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 품격 높은 마을 풍경 조성과 청결한 환경 보전

우리나라 섬마을 같은 경우는 통일된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금번 연수를 통해 그리스 섬마을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나라의 섬마을을 가꾸는 방안에 대하여 서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무엇인가 대단히 호화로운 주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주민간의 협력과 약속에 의해 통일된 채색을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풍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섬의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바다에 떠다니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섬의 지형과 부두 풍경을 더욱 크게 강조해낼 수 있었다. 향후 섬마을을 가꾸는 노력을 해 나갈 때에 청결함이 더욱 부각되고 이것이 우리 섬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섬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공평한 기회의 제공과 이를 위한 섬 간 협력

▷ 섬에 사는 사람들도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스 해양부에서 그리스 헌법 101조를 인용하면서 “그리스 정부는 본토민보다 섬 주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의 섬에 대한 애정과 이를 지켜나가고 싶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오랜 시간동안 그리스 섬은 문명의 발상지였고, 교역의 통로였던 탓에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의 자부심이 되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리스의 섬 주민들도 우리 섬 주민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육지 사람들에 비해 동일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가뭄 때에는 물이 모자라서 곤란을 경험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 면에서도 육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었다. 그리스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그냥 놓아두지 않고, 섬 주민이 본토민과 동일한 수준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정의’의 개념으로 바라본다고 하였다. 그들도 동일한 교통, 의료, 기본 생활여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섬 주민의 생활

우리나라 섬 주민들의 생활도 육지에 비해 곤란한 것이 많다. 교통 부분에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가 있어서 일정액 이상으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육지를 왕래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진 섬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차례 지나가는 배편에 의지에 육지를 왔다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항로가 놓아지지 않으면 바로 옆에 있는 섬으로 다녀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섬 주민들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로 왕래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간다. 교육 측면에서도 학교가 계속 통합되면서 섬 마을 어린이들은 육지의 어린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자라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원격교육, 화상교육을 통

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학교 교육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갑자기 아픈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최대한 빠르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주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서 적시에 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다. 이 외에도 에너지, 생활필수품의 공급, 복지·문화시설 등에서 어려움이 여전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섬 간 협력

그리스 해양부에서는 섬 주민들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스에서는 가뭄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이 많은 섬에서 적은 섬으로 해상 관로를 통해 물을 서로 나누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큰 섬에 대학을 설립하여 섬 주민들이 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펼쳐나갔다. 의료 문제에 있어서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빨리 병원이 있는 큰 섬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작은 섬의 경우에는 보건지소 등 의료기관을 설치하였다. 쓰레기의 경우에도 인근 섬의 쓰레기를 큰 섬에서 소각하는 체제를 갖추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섬 간 협력을 통해 섬이 가진 근본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을 나누고 쓰레기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 인근 섬을 중심으로 교육과 의료, 복지 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섬 주민들간의 잦은 왕래를 통해서 섬을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닌 외부와 쉽게 교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섬 간 협력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몇 개의 섬이 힘을 합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며 섬이 서로 돕고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보고 느꼈는가, 크로아티아 비상의 기운과 그리스 부활의 날개짓을!

-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행정자치부와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동료 공직자 29명과 함께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윗분들을 모시고 국외 출장에만 익숙해져 있던 나로서는 출발시 마음가짐부터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다. 하나를 보고 듣고 깨달은 바는 바로 오롯이 내 몫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나름의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며...



늘 느끼는 바이지만 유럽이라는 대륙에 발을 내딛기 위한 여정은 이번에도 만만치 않았다. 12시간에 거친 독일행과 다시 목적지 크로아티아, 그리스로의 이동. 경유지까지 포함하면 7박 9일간 무려 5개국의 땅에 나의 체취를 남기는 기록도 세웠다.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접했던 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니크와의 첫 번째 조우는 남은 여정의 기대감과 설렘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이 도시의 내면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현대사의 아픈 역사는 나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다.

1979년의 대지진과 1991년부터 2년간 지속된 세르비아 등과의 내전으로 인해 197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영광을 누렸던 이 도시에 인류는 또 다른 문명의 상처를 남겼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 도시의 상징인 주황색 지붕의 기와와 벽돌 한 장까지도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위해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외진 마을들을 찾아 하나 둘씩 재건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진의 축에 속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내진설계가 필요함에도 예산문제로 인해 원형복구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답변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크로아티아에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비롯한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지만 내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은 곳은 ‘렉터궁전’이었다. 최고 통치자인 렉터로 선출된 자는 청렴을 최고의 정치 철학으로 삼고 재임 기간 중에는 궁전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한다. 지인은 물론 가족과도 철저히 떨어져 오로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렉터 궁전의 현관에 새겨져 있는 ‘이 문을 들어선 순간 과거는 모두 잊어라.’는 격언은 오늘날 국내 정치 현실을 되돌아 보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은 물론 공직자 역시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아드리아 해변을 따라 스플리트와 치오보를 비롯한 수많은 섬, 자다르까지 조성된 요트 계류장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심플하면서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누구나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리나 시설 확충과 레포츠 시설 조성시 반영할 필요성을 느껴 열심히 사진을 찍고 메모하였다.



이렇듯 청렴의 통치 철학 아래 살아온 크로아티아에게 소련의 신흥부자들이 무상으로 ‘달마시아’ 지역을 개발해 주겠노라 요청하였음에도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였다는 유명한 일화는 정책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구 유고연방의 7개 국가 중 이제는 당당한 신흥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크로아티아. 스톤의 굴 양식 산업, 네레트바 산의 명품 과일, 낙하산과 넥타이의 원조 국가. UN 국제 난민기구 등과 내전의 상처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그들의 자긍심과 능력을 세계 공영에 기여할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빌면서 그리스로 향했다.

그리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반도 국가로서 에게해를 중심으로 6,000여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한때 관광과 해운업을 중심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으나, 잘 알려져 있는 대로 현실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경제난의 심화로 국가 기능은 마비상태에 놓여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는 정도.

에게해의 섬을 둘러볼 수 있는 크루즈를 이용하여 포로스, 에기나, 이드라 등 3개 섬을 방문하였다. 오랜 전통의 관광국가에 걸맞게 섬마다 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총체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해양부에서는 해양 정책은 물론 섬 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정부는 본토보다 섬 전체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그리스 헌법 정신에서 그들이 얼마나 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펼치는 지 알 수 있었다. ‘교통에 관한 평등 조절법’이나 수자원 개발사업과 섬 개발 총괄은 차관이 직접 하고 있다는 그들의 시스템이 있기에 에게해의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시 부활하는 그리스 는 멀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져 보았다.

아드리아해의 보석, 신흥 맹주 크로아티아의 비상!

유럽 문명의 발상지이자 에게해의 심장 그리스의 부활!

선진국의 길목에서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영원히 타오를 동방의 태양 나의 조국 대한민국!!

부디 세 나라 모두 오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글로벌 시대의 국격에 걸 맞는 자리를 찾아 맹위를 떨치기를 바라면서 에게해를 뒤로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 아드리아해와 에게해의 문화유산국 크로아티아와 그리스 (목포시 윤재웅)

처음 행자부의 2016년 특수상황지역 활성화
화를 위한 국외 연수계획 관련 공문을 접
하고 공직생활 11년 만에 처음 가는 유
럽지역에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위원회
그리고 다른 지역 시·도 공무원들과 함
께하는 7박9일간의 국외연수는 국내에서
는 접하지 못한 낯선 도시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수에 참
가하게 되었다.



첫 방문지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해를 따라 발달한 해안 도시들이
기억에 남는다. 그 중 첫 방문지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1991년 내전을 겪으면서도 도시복원을 위해
독립기구인 두브로브니크 복원연구소를 두고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보호코자 성당 복원을 위해 시간을 두고 지방까지 찾아가 지붕 기와
등을 찾아서 복원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문화재 복원에 있어 다시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돌아보게 되었다.

아드리아해변을 따라 이동하면서 크로아티아 제2의 도시 스플리트,
크로아티아 본토와 치오보 섬 사이에 있는 작은 섬 트로기르, 아드리아해
북부에 위치한 항구도시 자다르까지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요트 계류장
이었다. 크로아티아의 요트 계류장 시설은 심플하면서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누구나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다.
우리나라와 달리 크로아티아는 많은 사람들이 요트를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고 이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없는 것도 심플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이유인 듯 하다.

두 번째 방문지인 그리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로서 에게해를 중심으로 6,000여개의 섬을 가지고 있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섬마다 특색을 가지고 섬 관광 상품을 활성화 하는게 눈에 띄었다. 그 중 우리가 체험한 에게해 크루즈는 포로스, 에기나, 이드라 섬 3곳을 패키지로 섬 관광과 크루즈 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었다. 얼마전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우리시 3개 섬을 배경으로 예능을 겸한 크루즈 여행을 촬영하여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다. 예능적 관점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번에 그리스를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면서 우리시에 있는 섬별 특색을 살리면 관광상품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

이번 연수기간 동안 크로아티아와 그리스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리며 현대시설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 해양 관광 저변 활성화와 도서개발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보다 열린 마음과 넓은 시야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어쨌면 우리가 연수를 떠나기 전부터 알고 있던 해답을 선진사례를 보고 다시금 깨우친 그런 연수가 아니었나 생각해본다.